

# 블랙홀 ‘진보당 사태’…민주, 공안정국 우려

민주 “대선개입 물흘라” 촉각 속 현재 결정 주목

박영선 의원 국정원 댓글 의혹 감사원 감사 요구

정부가 현정 사상 최유의 위험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하면서 정치권의 모든 쟁점을 빼아들이는 양상이다.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이나 박근혜정부의 공약 파기 등 중요안이 모두 통합진보당 사태에 묻혀버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진보당을 고리로 해서 ‘진보를 가장한 종북’이라는 프레임으로 정국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6일 오전 최고증진연석회의에서 “권위주의 시대에서 민주주의 시대로 이전하면서 진보의 이를 아래 사실상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부정하는 세력들이 많이 성장한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등 야권 전체를 공세의 대상으로 확대하려는 조짐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분위기와 내년 지방선거까지 가면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이날 불교방송 리디오 ‘아침저널’에 출연, “정부가 이렇게 무례할 수 있을까 공포증이 든다”며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을 기다려보자면서 진보당의 경우 일부 간부들이 재판을 받는 상태에서 심판 청구를 하는 것을 보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공안정국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한 것도

이런 분위기를 우려한 대목이다.

때문에 제1야당인 민주당은 진보당 해산심판청구를 비판하면서도 종북 프레임을 의식해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이념·안보 이슈가 다시 정국을 뒤덮으면서 당장 국정원 개혁 등 대여 투쟁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고 내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몰고 올 여파가

작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여권을 비판하는 당의 태도가 ‘종북 감싸기’로 비치지 않도록 ‘선 길’에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신중’을 당부하면서도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북한식 사회주의 정권 수립을 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고 진보당에 요구했다.

전병현 원내대표 역시 “종북적 결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준동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도 “민주당은 종북세력을 단호하게 배격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상황은 반전될 가능성도 있다. 만약 현재가 청구를 기각할 경우 정부 여당이 근거 없는 종북몰이를 했다는 역풍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회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날 국가정보원의 불법 정치개입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이날 법사위 감사원 결산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한 뒤 “국회에서 국정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만 ‘국가 기밀사항은 자료 제출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는 국정원법을 근거로 지금까지 사실상 감사를 받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성용락 감사원장 대행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현행 체계와 법적 제약 상 효율적 감사 수행에 장애가 있다”며 국정원 감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박경기자 jkpark@kwangju.co.kr



진보당 의원들 삭발·단식 돌입

통합진보당 의원단이 6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사수결의대회에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에 항의하며 식발식을 하고 있다. 이상규(왼쪽부터), 김미희, 오병윤, 김재연, 김선동 의원. /연합뉴스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과 관련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왼쪽은 김경수 전 청와대 비서관. /연합뉴스

문재인 의원, NLL 회의록 실종 관련 검찰 출석

## “노前 대통령 NLL 지켰고 회의록은 멀쩡히 잘 있다”

민주 “불법유출도 신속 수사”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 친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6일 오후 검찰에 출석했다.

문 의원은 이날 오후 1시47분께 변호인과 함께 서초동 검찰청사에 나와 검찰 조사에 임하는 입장장을 간단히 밝힌 뒤 조사실로 향했다.

문 의원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회의록)은 멀쩡히 잘 있고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NLL을 확실히 지켰다는 것을 국민이 이미 알고 있다”는 말로 그간 논란이 됐던 ‘사초 폐기 의혹’과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의혹을 일축했다.

문 의원의 출석에 맞춰 청사 주변에는 ‘문재인 서포터스’ 및 ‘문재인을 사랑하는 이들의 모임(문사모)’ 회원 등 문 의원 지지자 150여명이 모여 피켓을 들고 ‘부정선거 규탄’ 등 구호를 외쳤다.

반면,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문 의원은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 역사와 국민 앞에 사초 폐기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박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사상 첫 정당해산 청구…현재, 범리검토 차수

주심에 진보 성향의 이정미 재판관



현정 사상 처음으로 정당해산심판 청구사건을 다루게 된 현법재판관은 6일 오전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다.

정당해산 심판대에 오른 통합진보당 관계자의 시위를 우려한 듯 현재 정문화 주차장 등에는 경찰 10여 명이 경비를 서고 있었다.

이날 오전 9시 6분에 출근한 박한철 현재소장을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미소만 띤 채 집무실로 올라갔다.

박 소장은 이날 출근 직후 재판관 8명을 모두 모아 티타임을 갖고 주심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2시 추첨을 통해 이정미(51·16기·사진) 재판관으로 주심이 정해지면서 현재는 긴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 재판관은 1962년 을산에서 태어나 마산여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시험 26회에 합격한 뒤 대전지법·수원지법·서울지법·서울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그러나 티타임에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통상적인 방법대로 전자추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박 소장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재판관 9명 중 유일한 여성인 이 재판관은 보수 성향의 5기 현재에서 비교적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과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교육감직 상실로 이어진 ‘사후매수죄’에 대해

날 법무부에서 접수한 기록을 넘겨받아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이번 정당해산심판청구 사건은 통상적인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과 달리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데다 접수된 기록도 방대한 분량이어서 검토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5일 정오께 법무부에서 제출한 기록은 3000쪽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현재에 접수되는 사건은 주요 사건이라 하더라도 기록이 100쪽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많은 분량이다.

주심은 결정과 함께 사건 검토를 위한 연구팀도 별도로 구성됐다. 일반적으로는 주심에 속한 전속연구관이 사건 내용을 검토해 재판관 회의에 보고하지만, 현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연구관 여러 명으로 별도의 팀을 꾸리기로 했다. 이를 연구관은 전

날 법무부에서 접수한 기록을 넘겨받아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이번 정당해산심판청구 사건은 통상적인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과 달리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데다 접수된 기록도 방대한 분량이어서 검토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의원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회의록)은 멀쩡히 잘 있고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NLL을 확실히 지켰다는 것을 국민이 이미 알고 있다”는 말로 그간 논란이 됐던 ‘사초 폐기 의혹’과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의혹을 일축했다.

문 의원의 출석에 맞춰 청사 주변에는 ‘문재인 서포터스’ 및 ‘문재인을 사랑하는 이들의 모임(문사모)’ 회원 등 문 의원 지지자 150여명이 모여 피켓을 들고 ‘부정선거 규탄’ 등 구호를 외쳤다.

반면,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문 의원은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 역사와 국민 앞에 사초 폐기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박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나주 혁신도시·강변도시 남다른 부동산 투자법!

매물을 팔려는데!?  
매물을 사려는데!?

고객 여러분의 고민을  
솔로몬 부동산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상업용지 / 균생용지 / 점포주택지 / 주차장용지

바로 지금이 기회!!

나주 혁신도시 전문

나주 솔로몬 공인중개사

061)333-7077, H. 010-5587-3080 / 010-3505-8005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우정사업본부 후문 방향)

### 부동산 성공 투자 하늘땅 공인중개사 가 함께합니다

#### 상가/건물

- \* 교원공체부근 1층상가 225㎡ 매 12억3천 (보1억3천·월600만 포함) 유명프랜차이즈 입점점
- \* 도천동 신축창고 대지2,500㎡, 건평500㎡ 17억
- \* 세하동공장 대지1,499㎡, 건평234㎡ 6억8천
- \* 사우나건물(8층) 17억5천(보8천·월800만 대출 9억5천), 직영 월천만수입
- \* 첨단 물류등 건물 매 27억(보증금 2억8천·월 1,600만)
- \* 예식장건물 65억(병원·교회등 다목적이용 가능)

#### 대지/전답

- \* 상무지구 대지 405㎡(122평) 매 8억5천
- \* 용전동 전(자연녹지) 1,180㎡ 매 5억3천
- \* 신창동 전(생산녹지) 1,980㎡ 매 6억5천
- \* 세하동 대지(자연녹지) 5,500㎡ 매 6억6천
- \* 완도 약산 전(계획관리) 11,000㎡ 매 8억4천
- \* 장흥 유통면 전·임야 101,851㎡ 매 6억
- \* 해보면 2차선도로변 대지 1,245㎡ 매 9천5백만

#### 기타

- \* 광산구 본덕동 주유소 매 7억(보1억·월 350만)
- \* 영암 삼화중공업인근 주유소 매 9억(대출 5억)
- \* 담양 월산면 가든식당 1,520㎡ 매 3억8천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늘땅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5536-0382 Fax 062) 974-0449

### 금당공인중개사

매매·교환·설계·시공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 투자·감정가 이하

- \* 충장로5가 버스도로 대지777㎡(235) 공시지가 17억7천 오피스텔, 상가개발적합 9억6천
- \* 함평군 영동재도는 여관 대지 320평 건평211평 객실 21실 대출4억 교환도 가능 8억8천
- \* 원룸·다세대적합지 북동상업지 64평 매도 1억6천
- \* 대인동 소방도적합 상업지역 789㎡(238) 오피스텔·생활주택·다세대적합 금남로 5번가에 있음 9억
- \* 조선대학교 앞 동평동 고시원과 주택 및 사무실 등 건물4동 대지321평 건물592평 고시원 176실 전세 5천만원에 월 3500만원 수입예상. 대출9억 임대수익생활에 적합. 소유권 이전은 법인이전 가능 17억
- \* 광진지구 나주시 낭평읍 비행장도로부근 2192㎡(663)와 주택 매도 2억4천
- \* 광진구 신천동 6차선과 4차선 도로 코너 대지302평 건물은 4층 715평 사무, 병원, 요양시설, 종교시설 적합 행 18억2천 전세3억4천에 월 1600만 수익 증축도 가능 33억

#### 매도·임대

- \* 매도. 수기동 상업지역 705㎡(213) 월룸·투룸·쓰리룸 92개 허가. 주택기금 12억 가능. 투자에 적합 7억2천
- \* 매도. 신안군 지도에 아파트, 증도에 슬로리지와 엘도라도 가는 길. 바다가 보이는 별장용APT. 30평과 41평이 있고 대출은 8천에서 1억2천 가능. 가격은 1억2900만원과 1억8500. 임대도 가능하며 대지나 삼가 부지와 교환도 가능
- \* 임대. 신창동 보건대학 부근 주택전시관 1층167㎡(50) 전세 5천에 월2000만 임대. 분위기있는 식당도 적합
- \* 임대·매매. 생활동에 신축중인 기도생활주택 2차 건물 호텔급 시설의 품질은 9평형 주택. 임주는 12월 초 임대는 전세1000에 월40선. 매매는 6300만원(대출 3천만원 포함) 투자자는 여러 개를 매입해서 임대하면 수익성이 매우 좋음.

문의 222-4994, 010-2632-5659

생촌동 (구) 등기소 자리. 기도 생활주택 전시관

###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주)다와우선컨설팅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근린시설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 근린 시설

- \* 동구 지산동 주거지 3층근린 대지241㎡ 건평307㎡ 김정기4억
- \* 광산구 쌍암동 일반상업 숙박시설 대지1760㎡ 건평 2821㎡ 김정기46억 최저가26억
- \* 나주시 송월동 상업지역 6층상가 대지545㎡ 건평 2309㎡ 김정기13억 최저가7억